완벽한 외모, 남의 일이 아니다

(사무엘상 16:1~13)

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완벽한 외모,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완벽한 외모, 남의 일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기억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지만 그 외모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관계 맺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외모와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를 중요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내 외모를 중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세상에 거울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외모는 철저히 사회성을 띕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이 있을 때에 외모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인도에서 평생 혼자 사는 사람은 나르시스트가 아닌 한 외모의 의미는 거의 제로입니다. 만남이 외모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는 본질적으로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완벽한 외모가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외모가 사회적 본질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한 경제학자가 미국과 캐나다의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외모에 다섯 등급을 매긴 후에 외모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학력과 경력 등 다른 인적 변수가 동일할 경우에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진 남성이 평균적 외모를 가진 남성에 비해서 5%의 임금을 더 받고,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남성은 9%의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외모로 인한 임금 프리미엄이 4%였고 평균 이하일 경우에 패널티는 5%였습니다.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답답한 이야기인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앞뒤로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의 본뜻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완벽한 외모를 갖추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슨 뜻입니까?
'완벽한 외모'란 나의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느낌과 반응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일로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외모를 보고 예뻐하거나 거부하더라도 내 인생의 온전한 행복과 성취와 결과를 위해서 그러한 반응이 필요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 외모는 완벽한 외모가 아닙니다. 그러한 외모는 내 인생에 꼭 필요 없는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져 부담을 주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내 외모를 보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워서 인생을 주저함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외모는 연예인식의 외모를 갖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외모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반응만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는 내 외모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섰을 때에, 허락 없이 서면 죽지만 왕이 내민 금규를 잡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에 5:2~3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

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에스더의 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외모를 보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39:6~8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 요셉이 거절하며…"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총리로 발탁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대로 반응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예쁘다고 탄성을 지르는 외모가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한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외모가 완벽한 외모인 것입니다. 많은 남자가 예쁘게 생각하는 여자가 인생을 얼마나 소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왕이라도 된 착각 속에 빠졌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모든 남자들은 나를 예쁘게 보지 않도록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나뉜 5등급 중에서 마지막에 속하더라도 나를 보는 사람의 반응은 내 인생에 필요한 반응만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마음에서 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명하십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온 사무엘이 여덟 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였던 다윗을 만나게 되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형제들 중에서 첫째인 엘리압을 본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의문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12절의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라는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본 사무엘이 왕이 될 자로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대할 때에 중심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고 뛰어난 외모에 대한 묘사만 나타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지만 사무엘은 다윗을 만날 때에는 외모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통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모는 만남과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모여서 인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면 그 관계에 개입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관계의 방향이 결정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외모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에는 외모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모든 사람의 반응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장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완벽한 외모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러한 외모의 소유자였기에 다윗의 외모를 표현한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완벽한 외모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데 삼상13: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에 완벽한 외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의 나이가 20세도 안 되었을 때입니다. 30세에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반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10년 넘도록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장로 권사 목사로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걱정이 태산인데, 어떻게 다윗은 20세도 안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여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현실로 삼으면 현실성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라고 한 것이 현실(現實)입니다. 왕처럼 빛을 내면서 나타나서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고 가득 채우는 존재가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자의 특징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는데 마음의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하시고 완벽한 외모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 중에서 한 여자가 내 마음에 빛을 발하며 들어왔을 때에 '당신은 나의 태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태양인 것이 현실입니다. 돈만 보인다면 돈이 나의 태양이 된 것이고, 돈의 속성을 보지 못하고 돈의 외모를 보며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현실로 모셔 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자를 하나님은 완벽한 외모의 소유자로 삼으십니다.
내가 못 생겼든 잘 생겼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빛나는 외모를 보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때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남자도 나타날 것이고 그 남자와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결혼하지도 않을 남자들이 나를 예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

다. 그런 자들이 내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파리 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내 외모가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네온사인이 없고 가로등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외모가 내 마음에 보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나의 현실이 되려고 안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돈, 외모, 건강,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의 모든 빛을 십자가로 꺼버릴 때에 하나님이 찬란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맞아하시고, 내 생긴 대로의 외모를 완벽한 외모로 만드셔서, 내 외모를 보고 일어나는 모든 반응이 심지어 나를 멸시하는 것일지라도 내 인생의 궁극적 성취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완벽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완벽한 충만 주시기를 원하시고, 완벽한 외모까지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완벽한 외모의 소유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